

# 은행들 수익성·건전성 ‘빨간불’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 등의 여파로 광주은행을 비롯한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가와 채권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내 은행의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확대됐으며 국내의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연체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 실물 경제 침체 여파 1~9월 순익 36% ↓

### 광주銀 9월 현재 BIS 비율 0.26%P 하락

### 자본 6조4천억 감소·위험자산은 4조 늘어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이익창출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국민·씨티·수출입은행 BIS 비율 10% 이하=국내 18개 은행의 올해 9월 말 현재 BIS 비율(이하 바젤 II 기준)은 10.79%로 6월 말에 비해 0.57%포인트 하락했다.

바젤 I 기준으로 본 은행 평균 BIS 비율은 10.61%포인트로 같은 기간 0.94%포인트나 악화했다.

이는 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커지면서 자기자본이 6조4

천억원 감소했고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위험가중자산이 4조원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은행의 경우 9월 말 현재 BIS 비율이 10.58%로, 6월 말(10.84%)보다 0.26%포인트 떨어졌다.

은행별로는 우리, 하나, 외환, 대구, 부산, 농협, 수협 등 7개 은행은 BIS비율이 상승했다. 반면 신한, SC제일, 씨티, 국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기업, 수출입 등 11개 은행은 하락했다.

특히 국민(9.76%)과 씨티(9.50%), 수출입(8.75%) 등 3개 은행은 BIS 비

율이 10% 미만으로 추락했다.

금감원은 은행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며 10% 이상(자본적정성 1등급)은 우량은행으로 구분한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3개월 이상 연체)도 9월 말 기준 0.81%로 지난해 말 대비 0.09% 상승해 자산건전성이 악화했다.

기업대출의 부실비율이 0.92%로 0.12%포인트, 신용카드채권은 1.10%로 0.14%포인트 높아진 반면 가계대출은 0.53%로 0.01% 낮아졌다.

◇1~9월 은행 순이익 36.2% 감소=국내 은행들의 이익창출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체력도 악화되는 양상이다.

올 들어 9월까지 국내 은행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8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했다. 지난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출자전환주식 매각이익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9월 누적 순이익은 15.7% 줄었다.

금감원은 부실여신이 늘어나면서 총당금 전입액이 4조7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조2천억원 늘어난 데다 증시침체와 채권가격 하락 여파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5조9천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자이익은 수익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5.9% 늘어난 24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1~9월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72%,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41%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9%포인트, 6.91%포인트 하락했다.

# 삼계탕·한우도 美 수출한다

〈내년 상반기〉 〈내년 연말쯤〉

## 美 검역팀 국내 상황 점검 마쳐

삼계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한우 고기는 내년 하반기에 사상 처음 미국 수출 길이 열릴 전망이다.

11일 농식품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농업부(USDA) 식품안전검역청(FSIS) 소속 검역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미국 검역단은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하림·마니커 등 닭고기 생산·가공업체 작업장을 방문, 검역·위생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갔다.

이들은 귀국 후 60일안에 점검 보고서 초안을 작성, 우리측 의견을 듣고 다시 60일간의 국내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삼계탕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만약 향후 별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 내년 2~3월께 미국측의 수입 허가 방침이 정해지고, 이후 시행규칙 개정과 입법예고 등 실무 입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삼계탕의 대미(對美) 수출이 가능하다는 예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미국측이 지적한 문제 가운데 심각한 부분은 없었고, 대부분 우리가 단기간내 개선할 수 있는 것들”



이라며 “내년 상반기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닭고기 업계와 정부는 1990년 중반부터 10여년동안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추진했으나, 미국측은 번번이 ‘동등성 원칙’을 내세워 “한국 수출 작업장의 위생·검역 수준이 미국내 작업장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해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도 개방 확대의 반대 급부로 삼계탕 수출 허용을 미국측에 요구한 바 있다.

역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거론된 한우 고기 수출 문제도 거의 해결 단계에 이른 분위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미국측의 구체적인 조사단이 우리나라를 다녀갔고, 이후 미국측과 문서 등을 통해 보완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면 긍정적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피치 신용등급 전망 하향’ 반박

### 증권업계, 국내 은행 유동성·기업 구조조정 문제 안돼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대해 증권업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간판 증권사인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감등하며 제시한 논리를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피치는 전일 한국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경제의 부진, 대내적으로 은행 유동성 부족,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A+를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 향후 신용등급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피치의 등급전망 하향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먼저 은행의 유동성 문

제의 경우 미국·유럽 등 선진국이 한국보다 더 심하게 연방준비제도(FRB)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공급이 없다면 당장 연명하기도 힘든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국 은행들을 문제 삼아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은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어야 하는 나라는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유럽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도 전세계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는데 한국만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며 문제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부실기업들을 살리는 데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국에만 고통스런 처방인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것은 앞뒤 상황이 안 맞는다는 것이다.



## ‘당도 최고’ 골드키위·바나나

11일 농협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주산 골드키위·바나나·파인애플을 살펴보고 있다. 하나로마트 측은 난지연구소에서 개발한 당도 14브릭스 이상의 골드키위 1팩을 4천500원, 파인애플 1개 5천500원, 바나나 100g을 79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11일 농협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주산 골드키위·바나나·파인애플을 살펴보고 있다. 하나로마트 측은 난지연구소에서 개발한 당도 14브릭스 이상의 골드키위 1팩을 4천500원, 파인애플 1개 5천500원, 바나나 100g을 79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 공기업 부채비율 100% 넘었다

### 지난해 170조원 전년 대비 16%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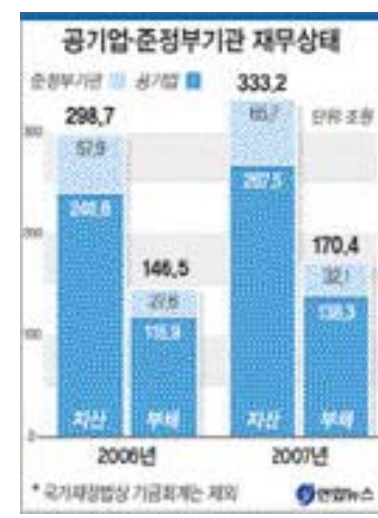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01개 공공기관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조 4천억원(12.8%) 늘어난 126조1천억원, 순이익은 4천893억원(8.8%) 증가한 6조1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다는 하향 일부 공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우려할만한 지표도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매출은 77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6천억원(12.4%) 늘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판매량 증대로 매출이 2조원 늘어난 것을 비롯해 토지공사 가 택지개발 토지매출 증가로 1조4천억원, 가스공사가 발전용 판매물량 증대 등으로 1조4천억원이 각각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영업이익은 총 7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971억원(4.3%) 증가했다. 영업수익이 12.8%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이 13.4%나 늘어 영업이익의 구조는 악화됐다.

부채는 총 170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조9천억원(16.2%) 증가했다. 특히 부채비율은 200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 2005년 85.5%에서 2006년 97.6%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107.0%



로 처음 100%를 넘어섰다. 이는 2006년의 민간기업 평균인 105.3%를 웃도는 수준이다.

# ‘페트병 수돗물’ 판매 추진

### 지자체·수자원공사 등에 허용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페트병 등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서울시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지자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행사장 등에는 무료로 공급되고 있지만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수도

법 때문에 판매는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 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상수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공장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 “中企지원 거부 금융사 불이익”

### 김동수 재정부 차관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자급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금융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은행들이 비유 때 우산 헛기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특히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7월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계속 감소하면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위축되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기업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불이익’ 방안 등에 대해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돕기 위해 “보증비율도 현재 80%에서 대폭 높이고 특례보증비율도 높여서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이리버	이리버 인버문드 고객센터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1/13	02-3019-6554
금호생명 광주본부	[광주/전남] 경력직 영업관리자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11/13	062-350-3052
한국동아제분(호남지점)	경리사후 정규직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3	062-655-0018
동래저개발	전남/광주 우등산 컨트리클럽 프론트/식음료(Waitress)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1/14	02-585-9896
소보이	센스있는 웹디자이너(쇼핑몰 경력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14	010-6610-8815
보광산업	[담양]영업관리 및 품질관리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4	061-383-7001
다보알앤디	인포메이션 어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1/16	062-716-1004
살롱산업	경리/전산/회계/생산관리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7	062-652-2701
재용상사	매장관리, 의무판매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7	011-642-8287
류로넷	[연봉2400]SK텔레콤 광주 114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11/18	02-780-9595
한국제기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8	062-232-7004
GM대우자동차	2008년 신입 및 경력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5000~6000	11/18	062-653-5828
국토정보기술단	조정/설계 정규직 사원	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19	062-431-0079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금융시장 ‘트리플 약세’

###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주가·원화 동반하락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이 주가와 원화, 채권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를 보였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23.73포인트(2.06%) 떨어진 1,128.73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뉴욕증시의 하락 소식에 19.12포인트 떨어진 1,133.34로 출발한 뒤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밀려 하락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도 6.43포인트(1.94%) 하락한 325.74를 기록해 코스피와 함께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섰고 개인도 순매도를 기록했다. 기관은 ‘사자 행진’을 이어갔으나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서킷시티의 파산보호 신청과 제너럴모터스(GM)의 유동성 위기 등 미국발 실물경기 침체 우려가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 증시의 하락세는 원화 가치의 약세로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3.60원 오른 1,329.90원으로 마감됐다.

이날 환율은 고점인 1,360.00원, 저점은 1,318.00원에 달했고 소규모 주문에도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트’ 장세를 연출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주가 약세의 여파로 환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이 88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한 것도 주가와 원화 약세를 견인했다.

채권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채권시장에서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연 5.24%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채권시장은 장중 대우차판매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 지연 소식으로 약세를 나타냈으나 막판 보험권에서 마무리됐다.

# “펀드 불안전판매 책임 손실금 50% 배상하라”

### 금감원 분쟁 관련 조정 결정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파워인컴 펀드 관련 분쟁에 대해 우리은행에 불안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에금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방문한 민원인 A씨(58세, 주부)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부도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는 청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지만 25%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민원을 제기한 A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할만한 소지를 제공했다며 손실배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만 민원인이 투자실태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에 서명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종류 파생상품’이라고 기재돼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 위험성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금감원이 불안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파생상품 펀드인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판매사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로 50%할인**  
학교끼리 타임 할인제도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